

중국 - 면제품수출 진흥책으로

세금환급률을 17%로 인상

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종전에 면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되돌려주는 세금 환급률(稅金還給率)이 15% 이던 것을 금년 7월부터 17%로 올려, 그 동안 고전하고 있는 면제품의 수출을 진흥하기로 하였다.

금년 들어 현 제도하에서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섬유품 수출 중에서도 특히 면제품이 가장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. 중국산 면화가 1톤에 1만 3천위안(1元=약 150원)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약 20%가 비싸며, 현재의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약 18%가 비싸다. 한편 면사나 면포의 가격은 떨어져 있어 면방직기업은 현시세로 볼 때 원료는 비싼데 그 원료로 생산된 제품값은 싸서 채산이 나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.

중국은 수출할 때 되돌려 받는 세금환급률을 올려주면 수출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풀리게 되므로, 1999년 7월에 어패럴의 환급률을 17%로 올려줌으로써, 그 당시 정체하고 있던 수출을 급속히 회복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다.